



2021년 10월 9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8(금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0. 8(금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이승헌 과장(044-203-4080)	담당자	장원 사무관(044-203-4081)

머크 일렉트로닉스, 한국에 반도체 소재 등 전자분야 사업 확장을 위해 6억 유로 투자 발표

- 우리의 반도체 공급망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-
- 머크 고위관계자 접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노력도 기여 -

□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.8일(금) 訪韓 중인 카이 베크만 (Kai Beckmann) 머크 일렉트로닉스(Merck Electronics) 대표를 만나 對韓 투자 협력을 논의함

* (일시/장소) 10.8(금) 17:30~18:30, 포시즌스 호텔 (참석) 머크일렉트로닉스 CEO, 한국머크 대표 등

○ 머크는 별도 발표를 통해 2025년말까지 반도체 소재 등 전자산업 분야에 전세계적으로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, 이중 약 6억 유로를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

○ 머크는 '89년 한국에 투자한 이후 지난 32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, 안정적인 반도체 소재 공급, 약 1,400명 고용 창출* 등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음

* 경기도 평택·안성·안산, 인천, 울산 등 총 11개 생산·연구시설에 1,400여명 근무

○ 금번 투자는 'K-반도체 전략' 추진 등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는 우리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

□ 문 장관은 카이 베크만 대표에게 “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 강화, 첨단기술 확보 등을 위해 R&D 투자 확대, 인력 양성, 규제 개선 등 민·관이 함께 노력중”이며,

- “머크의 對韓 투자는 한국에게 안정적 공급망 확보, 선진 기술·인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, 머크도 수요기업과의 안정적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윈-윈 게임이 될 것”이라고 언급함
 - 아울러, “앞으로 머크의 개별 투자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, 정부 차원에서도 현행 법령상의 입지·세제·현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힘
- 금번 머크 일렉트로닉스의 對韓 투자는 수요기업 보유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사업환경도 중요한 결정요인이겠지만,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,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 등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
- 정부는 ‘K-반도체 전략’, ‘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(제정중)’ 등을 통해 인력 양성, 투자세액 공제 확대, R&D 확대 등을 추진중인 바, 이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음
 - 또한, 정부 고위급 인사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도 머크의 투자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, 금번 문승욱 장관의 면담을 비롯하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(9월)과 프랑크푸르트(10월)에서 두 차례나 연이어 머크 고위급을 접촉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음
-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·백신 등 국가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위급 접촉 확대,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시 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장원 사무관(☎ 044-203-40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